



삼국유사의 현대역과 대중화 사이의 관련 양상

A Study of Translation of Samgukyusa in Modern Language and its Popularization

저자 (Authors)	서철원 Seo, Cheol-won
출처 (Source)	우리말글 56 , 2012.12, 421-447(27 pages) URIMALGEUL :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6 , 2012.12, 421-447(27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말글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62371
APA Style	서철원 (2012). 삼국유사의 현대역과 대중화 사이의 관련 양상. 우리말글, 56, 421-44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3 10:2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의 현대역과 대중화 사이의 관련 양상*

서 철 원

(성균관대학교 조교수)

〈 차례 〉

1. 문제 제기
2. 주석에 따른 현대역의 유형
3. 현대역 유형에 따른 대중화 경향
4.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요약〉

『삼국유사』의 현대역은 크게 원전을 그대로 따르는 흐름과, 보다 많은 독자층에 호소하기 위하여 원전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전자의 경우 학계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 관련 주석을 종합하거나, 일부 전공에 특화된 정보를 중심으로 시각 자료까지 포함하여 첨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각각 ‘종합적 주석의 지향’, ‘주석의 특화 및 관련 자료 첨부’, ‘원전의 재구성’이라 하여 원전 번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삼국유사』의 대중화를 위한 성과는 번역 경향의 세 가지 유형에서 보였던 자세와 관련이 있다. ‘원전의 재구성’은 이른바 ‘미당 유사’라 불리기도 했던 서정주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가 구축한 신라의 형상은 ‘종합적 문화 원형’으로서 신라시대에 대한 관념 그리고 『삼국유사』에 따른 경주 지역에 대한 인상을 심화시키기에 일조한다. 아울러 향가, 처용, 이사부 등 개별적인 요소를 특화시키고 시각 예술로 변용해가는 고정에서도 전통시대의 이상향으로서 신라의 재현이라는 과제를 향한 압박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번역과 대중화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 이 논문은 2012년 우리말글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대구대학교, 8월 24일)의 고전문학분과 기획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영남대학교 김기호 선생님의 섬세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위해 원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벗어나는 한편, 종합적 문화원형의 지향 또는 개별 항목의 특화에서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세부적인 요소에 천착하는 경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삼국유사, 번역, 대중화, 원전, 정전, 문화 원형, 서정주, 경주, 처용, 이사부.

1. 문제 제기

본고는 『삼국유사』의 현대역과 대중화 사이의 관련 양상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관계를 전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여느 고전과 마찬가지로 『삼국유사』의 현대역 역시 당대적 가치와 현재적 의의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고심해 왔다. 여기서 그 특유의 분과 통합적 성향 탓에 ‘당대적 가치’는 분과 통합적 혹은 특정 분과에서의 중요성이라는 두 방향으로 세분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당대적 가치를 위주로 분과 통합적 방향을 우선시함.
- ② 당대적 가치를 위주로 특정 분과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함.
- ③ 현재적 의의를 위주로 원전의 자료를 선별하거나 현대화시킴.

여기서 ③은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번역과 대중화의 연관성이라는 우리의 논제를 고려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삼국유사』를 아동물 혹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번역 또는 변안에 해당하는 성과로 인정하여 본 논의에 포함시킨다.

①과 ②의 구별은 번역 자체보다는 주석을 붙이는 태도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가령 ①을 지향하는 번역은 특정 용어와 관련한 정보를 전공 불문하고 모두 모아 소개하거나, 정보의 깊이는 부족하더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에 ②는 번역자의 전공 또는 경험과 관련된 사항 위

주로 심화된 정보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①에서 『삼국유사』가 여러 전공을 포괄하는 공통의 고전이었던, 『삼국유사』 전체를 여러 매체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문화원형으로 구축해야 하는가? 아니면 ②에 의해 향가, 처용, 이사부 등 특정 시간과 공간[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징적 소재들을 먼저 콘텐츠로 개발해야 하는가? 이 차이가 번역의 유형에서만 말미암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복합적 시선이 번역과 대중화 작업에 두루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③에는 『삼국유사』를 교육이나 창작을 비롯한 특정한 목적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가공하는 성과도 포함된다.

앞으로의 논의는 현대어 번역과 대중화의 해당 성과를 각각 구분하여 위의 ①~③의 준거에 따라 검토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2장에서 현대역, 3장에서 대중화와 관련된 성과를 다룰 텐데, 각 항목의 연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 분	현대역 (2 장)	대중화 (3 장)
① 당대적 가치 위주의 통합적 방향	종합적 주석의 지향	새로운 ‘원전’ 창작
② 특정 분과에서의 중요성	주석의 특화와 관련 자료 추가	시대, 지역 중심의 종합적 문화원형 구축
③ 현재적 의의 위주의 선별	특정 텍스트를 선별하여 원전 재구성	개별적 요소의 콘텐츠화

여기서 2장과 3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단 ①에서는 전공을 불문한 백과전서 방식의 주석은 결국 『삼국유사』 이외의 정보와 『삼국유사』 수록 정보 사이의 網 구축을 통해 삼국과 신라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서정주가 여러 편의 시와 시집을 통해 『삼국유사』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시켜, 나름의 ‘신라’ 형상을 만들어내고자 추구했던 방법론을 답아 있다. 또한 ②에서는 특정 전공 분과의 목적과 필요를 감안하여 특수

한 성격의 주석이나 관련 시청각 자료를 덧붙여왔던 양상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성을 토대로 『삼국유사』에 접근하는 방식을, ‘신라’라는 특정 시대, ‘경주’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한정된 수요 또는 지역인의 애호와 밀착된 특수성으로써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형국과 같은 맥락에 놓인 것으로 파악했다. 끝으로 ③에서는 일부 유명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삼국유사』의 모든 텍스트를 서열화하여 선택 또는 배제시키면서도 ‘새로운 『삼국유사』’를 만들고 있다는 태도를, 몇몇 캐릭터 또는 개별적 요소를 선택하여 콘텐츠화함으로써 삼국·신라 시대 전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발상과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듯 현대역은 대중화의 토대로서 원전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대중화의 성패 여부에 따라 자신의 존립 근거를 평가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논의 대상은 항목별 특징이 뚜렷한 것들일 뿐, 그 성과의 가치가 여기서 빠진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2. 주석에 따른 현대역의 유형

2.1. 종합적 주석의 지향

『삼국유사』에 종합적 주석을 덧붙이는 작업은 일본에서 먼저 완성되었다. 미시마-무라카미의 『三國遺事考證』¹⁾은 ‘원문-역문-주해’의 순서로 『삼국유사』 정보를 모두 정리하였다. 특히 주해에서 각 구절별로 해설을 하고, 해당 부분과 유사 기록이 나오는 문헌의 원전을 인용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등, 『삼국유사』를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본서의 수록 정보를 피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1) 본서의 상·중은 三品彰英 遺撰으로 1975년과 1979년에 塙書房에서, 하는 3권으로 분책되어 村上四男에 의해 같은 출판사에서 하-1은 1994년, 하-2와 3은 1995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국내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간한 『역주 삼국유사』²⁾가 문학과 역사학, 사상사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성과이다. 개인적 성과에 비해 방대한 주석과 문헌 변증으로부터 학계의 최근 쟁점에 이르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 14) 薛原郎：郭東珣의 「八關會仙郎賀表」(『동문선』 권 31, 『해동고승전』, [史(『삼국사기』에 대한 略號)] 권 32에는 ‘原郎’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薛’을 성으로 본 경우도 있으나(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p.40), 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노태돈, 『羅代의 門客』, 『한국사연구』 21·22, 1978, p.5). 설원랑은 진흥왕 때 활동한 최초의 화랑이었다. 思內 奇物樂을 지었다는 原郎徒([史] 권 32 樂志)는 원랑의 낭도였던 것 같다.³⁾

개인의 저술에서는 ‘설원랑’을 진흥왕 무렵의 화랑 정도로 간략하게 주석을 다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본서는 종합적 주석을 지향한 만큼 ‘설원랑’의 용례를 『해동고승전』, 『삼국사기』, 『삼국사기·약지』 등으로부터 더 찾아 소개하고 있으며, 성씨와 관련한 학계의 쟁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포함된 정보의 양은 미시마-무라카미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정보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고, 마치 서둘러 작성한 것처럼 다소 뒤죽박죽인듯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쪽을 보면, 작성 방식 혹은 태도의 일관성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24) 國史 眞智大王大建八年丙申 始奉花郎：이 기사에 따르면 『국사』에서는 진지왕 때 화랑을 받들었다고 한다. 기사의 대건 8년 병신은 576년으로 이 해는 진흥왕의 말년이자 진지왕의 즉위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史] 권4 신라본기 진흥왕조에는 진흥왕 말년인 37년(576) 조에 화랑제 창설에 관한 기사가 있다. 이 때문에 본 기사의 진지왕 즉위년에 비로소 화랑을 받들었

2)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폐강, 『역주 삼국유사』 I~V, 이회문화사, 2002~2003. 본서는 3권까지는 2002년, 4권부터는 2003년에 출간하였다.
3)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폐강, 『역주 삼국유사』 III, 이회문화사, 2002, 208면.

다는 『국사』가 [史]를 가리킨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진지왕대 화랑제 창설에 대한 근거는 불명확하나, 혹시 [史]의 관련기사 연도(576)가 진지왕 즉위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견해가 있다([品(미시마-무라카미 고증의 略稱)] 下之一, p.285) [중략] 화랑의 설치 연대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상현, 앞의 논문, 1991, p.140. 정운룡, 「신라 화랑제 성립의 정치사적 의의」, 『화랑문화의 재검토』, 경상북도, 1995, pp.131-134.⁴⁾

이 주석은 전체적으로 보면 화랑의 설치 연대에 대한 학계의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 초반부에서는 이 기록이 『삼국사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다가 다른 주석서의 주장을 소개한다. 이어서 『삼국사기』 내부에서도 화랑의 설치 연대에 대한 이설이 있음을 덧붙이고는, 참고할 만한 연구 성과의 목록이 나온다.

문헌에 대한 서술과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개가 뒤섞여 있는 점은 앞의 주석과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앞에서는 해당 부분마다 괄호로 주장의 출처를 밝혔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모아서 밝힘으로써 어디까지가 해당 성과의 인용인지 알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서술의 논점을 파악하며 읽기가 어렵고, 본문에 대한 주석인지 연구사의 쟁점에 대한 간략 소개인지 그 성격이 모호해진 느낌이다.

본서는 인접한 부분에서, 사소한 요소끼리도 일관성을 갖추지 않았다. 공동 번역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이 성과에 대한 사계의 기대 수준을 헤아리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개인 번역물과는 차원이 다른 방대한 주석과 비교적 근래의 성과까지 포함한 쟁점 항목의 안내가 『삼국유사』 번역의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점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종합적 주석을 지향하는 공동 연구가 나오기 이전에도,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모든 전공 영역을 포함하는 번역과 주석을 향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성과는 이병도의 번역⁵⁾이다. 그의 번역

4)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폐강, 『역주 삼국유사』 III, 이회문화사, 2002, 209면.

은 전자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기에⁶⁾ 아직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 무렵 그의 저술이 대개 그러하듯, 민속학과 인류학까지 포함하는 직관 혹은 통찰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박성봉·고경식에 의한 번역도 역사학 전공자에 의한 성과이다.⁷⁾ 이들은 일반 국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번역을 지향하되, 너무 어렵거나 간략하지 않은 방향을 추구한다고 머리말에 밝혔다. 특히 이들의 주석은 故事와 地理 관련 정보가 매우 자세하고 그 숫자 또한 많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각 주석의 길이는 짧아지고, 깊이 있는 정보는 담지 못하게 된 느낌이 있다.

2.2. 주석의 특화와 자료 추가

『삼국유사』를 불교계의 유산으로 보는 쪽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짙은 번역물을 지향하였다. 권상로의 성과⁸⁾가 그러한데, 불교 용어에 대한 해석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이다. 김영태도 불교의 입장에서 『삼국유사』에 대한 전면적 고증을 시작하여, 「왕력」과 「기이」 편의 해체에 고조선과 위만조선 항목만으로 단행본을 이루었다.⁹⁾ 『삼국유사』 편찬자의 신분으로부터 불교와의 연고를 강하게 의식한 성과이다. 그러나 불교 특유의 진입 장벽 탓에 대중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후술할 이범교의 노력¹⁰⁾에 따라 다소 해결되고 있다.

『삼국유사』에 중국 문헌이 다수 인용되고 있으므로 중문학 전공자가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성과가 김원중의 번역¹¹⁾이다. 본서는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고, 주석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어 판형을 바꾸며 꾸준히 읽힌다.

5) 이병도 역, 『역주 삼국유사』, 동국문화사, 1956.

6) 이병도 역, 『CD-Rom 삼국사기·삼국유사』, 두계학술재단, 1999.

7) 박성봉·고경식 역, 『역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2.

8) 권상로, 『삼국유사』, 동서문화사, 1978.

9) 김영태,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 1, 도피안사, 2009.

1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상·하, 민족사, 2005.

11)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도화녀와 비형랑 :

- 1) 고운기는 이 조의 내용을 아래자 설화라고 했는데, 삼국 시대 신라인의 정조에 대한 개방된 정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후백제와 견훤’ 조에도 이런 유형의 설화가 있다(100면).

위의 주석은 「도화녀와 비형랑」이 아래자 유형에 속하며, 「후백제와 견훤」에 같은 유형이 있다는 간략한 정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신라인의 정조에 대한 개방된 정서”를 보여준다는, 대중에 호소할 만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관련된 쟁점은 소개하지 않고, 역사적·지리적 정보에는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다.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

- 10) 경덕왕 말년에 지은 것으로 ‘찬기과랑가’보다 후대의 작품이며 호국의 정성이 깃들어 있다. 조지훈 교수는 충담사의 신분이 단순한 승려가 아니고 화랑도의 양면을 띤 인물로 보았다.
- 11) 김상익 교수는 ‘讚’이 偈頌類의 ‘찬’이 아니고 한시의 ‘頌讚’류와 맥이 같다고 하였다. 양주동 박사는 이 작품의 기상천외한 시법에 감탄해 하면서 문답체의 구조로 보았다(166면).

10)은 「안민가」에 대한 설명인데, 호국의 정성과 화랑도와의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 창작 배경과 사상에 대한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충담사가 단순한 승려가 아닌 화랑도의 양면을 띠었다는 내용은 보다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승려이면서 화랑도와 유관한 인물이라는 단적인 인상으로 그 성격을 규정했다. 11) 역시 김상익과 양주동의 「찬기과랑가」 감상은 복잡한 문학과 수사법에 대한 분석을 배경으로 도출된 것이지만, 일반적인 대중이 이 항목에서 기억할 만한 내용은 ‘기상천외’라는 말뿐이 아닐까? 단정적 진술과 중간 과정의 생략은 고민 없이 『삼국유사』를 접하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국문학자인 고운기 역시 간략한 주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주와 역주를 구별했다.¹²⁾ 그리고 번역 당시 일본 유학중이었던 점을 서문에서

밝히고 강조한다.

홍법편 : 엽종... - 덕 있는 이름은 ‘친구’의 나무에 쓰이고...

[역주] 도쿄대학 배인본에서는 金+具를 鎭의 오자가 아닌가 보고 있고, 일본의 『국역일체경』에서는 金+延으로 보았다. 정은 庭과 같다고 하여, ‘하늘나라의 정원’이라 번역하였다(191면).

위의 주석이 일본 유학의 경험을 반영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편목의 서두마다 간략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점 역시 다른 번역물에는 드문 특징이다.

[역주] 탐상. 이 편에서는 불교의 사찰·탑·경전·사리 등을 적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유물의 현황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삼국의 불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발전했는지를 알게 해준다(201면).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독자의 「탐상」 편 이해에 先理解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유물 현황보다는 삼국 불교의 전체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의 조건을 덧붙이기에 효과적이다.

대중예의 호소력을 얻기 위해 기존의 北譯本¹³⁾에 4년간 찍어 온 사진을 곁들인 성과도 있다. 경주 지역의 유물·유적을 『삼국유사』를 곁들여 소개한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삼국유사』가 주가 되고 경주가 부가 되는 모양새는 흔치 않다.

이범교¹⁴⁾는 나아가 사진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각종 주변 정보를 더욱 꼼꼼하게 수록하였다. 직역과 의역을 적절하게 섞은 해석에 어려운 한자의 독음, 주석, 사진과 지도, 어려운 용어에 대한 연구 성과 요약 등 가장 많은 범위의 독자에게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구성이다. 가령 「이해동진」 조의 체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2) 고운기 옮김,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2001.

13) 리상호 옮김, 강운구 사진,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까치, 1999.

14)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상·하, 민족사, 2005.

- ① 『이혜동진_ 조의 번역
- ② 어려운 한자의 독음, 오각이 있는 부분의 간략 설명.
- ③ ‘동진’을 ‘화광동진’의 의미로 풀이하며, 다른 책에 의존하여 설명함.
- ④ 혜공의 이적과 관련하여 오어사 대응전의 사진 첨부.
- ⑤ ‘吾魚’의 의미를 김원주(경주박물관회 고문)의 의견을 인용하여 설명.
- ⑥ ‘芑矣川’의 어원을 김부식, 강헌규의 의견을 대립하여 표로 설명함.
- ⑦ 이혜동진 조 전체의 구성과 의미를 표로 정리하여 보여줌¹⁵⁾

번역하고, 독음과 주석을 달고, 어려운 말을 해설하고, 관련 사진을 첨부하며, 관련 권위자의 말이나 연구 성과를 요약한 다음,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표로 정리한다. 『삼국유사』 전체를 빠짐없이 이렇게 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교학계의 성과를 충실하게 원용했다.

2.3. 원전의 재구성

논의의 집중을 위해 『삼국유사』 전체의 재구성을 표방한 일부 성과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김열규를 중심으로 『신삼국유사』를 표방한 성과가 있었다. 다음 서문에 따르면 집필 원칙이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다.

『삼국유사』는 한국인이 영원히 꿈꿀 선망과 동경을 비추어 보이는 거울이다. 해서 여기 세 사람의 필자는 이 거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당대인들의 현실과 생활을 투사해 보고자 했다. 그래서 책 이름을 감히 ‘신’ 삼국유사라고 한 것이다. 『삼국유사』를 오늘의 처지에서 고쳐 읽되, ㉡첫째, 원전에 충실하게 읽기 / 둘째, 시대를 넘어서 간직하게 될 의미 읽기 / 셋째, 오늘의 현실에서 되돌아보면서 읽기 / 등 세 갈래로 읽고자 했다. [중략] 그리하여 이것들로 해서 피를 못 속일 그 무엇이, ㉢씨도독은 못할 그 무엇이 『삼국유사』와 오늘의 우리 사이에 있음을 감동 깊게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¹⁶⁾

㉠과 ㉢에 의하면 저자들의 의도는 오늘날의 현실이 투영된 『삼국유

15) 이범교, 위의 책, 하 302~311면.

16) 김열규·김정하·곽진석, 『신삼국유사』, 사계절, 2000, 6~7면.

사』를 새롭게 창작하되, “씨도독은 못할 그 무엇”으로부터 영속적 민족 문화의 원형을 찾고자 한다. 그리하여 ⑥에서 그 서술 방법으로 원전과 시대적 보편성, 오늘날의 특수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자 한다. 본서는 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시대를 뛰어넘어 읽어보는 『삼국유사』’라 하여 기호학 이론에 따른 독법으로 읽기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2장은 ‘오늘에 비춰 보는 『삼국유사』’라 하여 과거와 현재를 서로 통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가령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본서의 출간 시점인 IMF 직후의 시대상을 백제 멸망 설화와 연관 지어 논의하고 있다.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민심이 요동친다. 세간에 떠도는 해괴한 풍문들이 바로 그 반증이다. IMF 환란 직후 경남에서는 밀양 표충사의 비석이 땀을 흘리고 삼랑진 만어사의 미륵불 바위에 땀방울이 맺힌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소문은 바람결에 점차 곁가지가 늘어나고 구체성이 더해졌다. 그러다간 또 어느 결엔가 찾아들었다.

『삼국유사』 역시 그런 소문을 빌려 망국의 징조를 전하고 있다. 백제가 망할 즈음 크고 붉은 말이 나타나 밤낮으로 절에서 돌아다니고 궁중의 해나무가 사람처럼 울더라 했다. [중략]

그런 亡朝史에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점이 있다. 어느 나라고 지도층의 부패와 분열, 향락과 무질서가 亡國之本이라는 점이다. [중략: 이하의 자왕과 현재의 세대를 비교하는 내용](208면).

부분적인 유사성을 통해 오늘날과 삼국 시대가 공유한 멸망의 징후를 찾아내고 있다. 이 서술이 서문에서 지적한 ①과 ③의 의도에 얼마나 부합할지 생각해 보자. 밀양 표충사와 만어사 미륵불의 異蹟은 오늘날의 현실 생활인가, 아니면 “씨도독은 못할 그 무엇”인가? 본서는 『삼국유사』 전체의 재창작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서술은 당대와 현재의 유사성 찾기에 주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3장은 원전 따라 읽어 보는 『삼국유사』라 했는데, 주제별로 원전을 재구성하여 『삼국유사』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효과를 의도했다.

다음으로 고운기는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삼국유사』를 쉽게 풀이

하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해설까지 첨부함으로써 『삼국유사』의 현장을 視覺化하였다.¹⁷⁾

기이(20) : 이 땅의 첫나라 / 고구려와 북방계 / 신라와 남방계 / 탈해왕을 둘러싼 갈등 / 연오랑 세오녀, 첫 설화의 주인공 / 신라는 왜 일본과 앙숙일까 / 밤에 찾아오는 손님 / 신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 문희, 그 아름다운 여자의 이름 / 만파식적 만만파과식적 / 권력의 끝 / 수로부인, 미시족의 원조 / 첫 성전환증 환자 / 왕이 되는 자 / 나라가 망하는 징조 / 지는 해 뜨는 해 / 백제와 일본, 그 근친의 거리 / 서동은 정말 선화공주를 꺾었을까 / 견훤, 비운의 영웅 / 신비의 왕조, 가야

홍법(2) : 불교로 보는 역사 / 순교의 흰 꽃 이차돈

탐상(5) : 신라의 중심 세계의 중심, 황룡사 / 문수신앙의 근거지, 오대산 / 작은 절들에 서린 삶의 애환 /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 낙산사의 힘

의해(5) : 운문사 이야기 / 원효, 해동 불교의 자랑 / 의상, 화엄의 마루 / 순례자를 위해 부르는 노래 /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어떤 것

신주(1) : 밀교의 한 자락

감통(3) :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 호랑이 처녀와의 사랑 /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피은(1) : 숨어 사는 이의 멋

효선(1) : 불교가 보는 효도

향가, 가장 고귀한 것의 정화

일연, 혼미 속의 출구

『삼국유사』 목차에 따른 편목 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기이」 편과 여타 편 사이의 양적 균형도 20:18로 어느 정도 갖추었으며, 향가와 편찬자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전체 40개를 맞추었다. 세부 항목의 이름은 현대적 흥미 요소를 고려했는데, 「기이」 편에서 수로부인을 「미시족」으로,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을 해공왕 탄생설화로, 해공왕을 ‘첫 성전환증 환자’ 운운한 점 등이 독특하다.

저자는 비교적 상세하게 자신의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다음은 그 서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17) 고운기 글·양진 사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002.

첫째, 그 배경을 설명해 주되, ‘내가 만일 『삼국유사』를 썼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라는 기분으로 하였다.

둘째, 『삼국유사』에 실린 전체 조목 수는 약 140여 개, 그것을 『삼국유사』의 순서대로 40개의 제목으로 분류하여 기술했다.

셋째, 일본에서 정리해 놓은 여러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넷째, 일연의 생애와 저술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삼국유사』 본체를 이해하는데 요긴하다.¹⁸⁾

“만일 자신이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라는 기분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번역과 전달을 넘어선 창작의 성과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140개 조목을 40개로 줄이되, 원전의 양적 분배 기준과 최대한 유사하게 대표작을 선정하였다.

고운기의 성과는 비교적 분명한 관점에 따라 『삼국유사』를 재구성한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의 번역과 재구성이 3장에서 살펴볼 대중화의 다채로운 성과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진행형이라 하겠다.

3. 현대역 유형에 따른 대중화 경향

3.1. ‘미당 유사’와 새로운 원전의 창작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는 시인이 구상한 이상향 또는 이상적 시기로서 신라를 복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①초기의 『신라초』에서는 설화의 줄거리를 직접 수용, 압축하다가, ②중반기의 『동천』에서는 불교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비유법을 창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③후반기의 『질마재 신화』에 이르면 신라 정신에 기초한 자신만의 새로운 설화를 창조하는 방향에 이른다. 이를 서정주에 의해 재창작된 ‘미당 유사’로 부를 만하다고 한다.¹⁹⁾ 서정주는 절망적인

18) 고운기, 위의 책, 9~10면 참조.

현실을 정신의 힘으로 이겨내는 자세로서 『삼국유사』와 신라 정신에 주목하였으며, 그의 교수 자격 청구논문인 『신라연구』 역시 그의 시적 변모의 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진창영²⁰⁾에 의해 다시금 주목받기도 하는데, 현실을 위해 필요한 방향으로 고전을 재창작하는 자세는 앞서 살펴본 김열규의 시도에 의하여 재현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운기에 이르러서는 ‘현실’이 극복하거나 이겨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일상으로서의 현재’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창작과 번역·해석이라는 기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현재를 통한 과거의 재창조라는 점에서 서정주의 성과를 『삼국유사』 번역과 관련하여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여기서 서정주의 성과를 3.2.의 ‘종합적 문화원형의 구축’과는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당유사’는 失傳된 신라의 형상까지 시인에 의하여 오롯한 작품 속 세계로 구현된 성과인데, 이는 3.2.에서 현재라는 시간 또는 특정 지역의 관심사를 『삼국유사』라는 텍스트를 중심에 두고 풀이하려는 시도와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2. 종합적 문화원형의 구축

삼국유사와 관련한 문화원형의 유형으로서 ‘심성원형’과 ‘행위원형’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²¹⁾ 이 논의는 심성과 행위 사이의 표리 관계를 귀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화원형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삼국유사』의 가치를 부각시키기에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여기서는 ㉠‘시기’로서 신라의 心象에 주목한 사례와 ㉢‘지역’으로서 경주의 形相에

19) 조은정, 『『삼국유사』의 시적 수용과 ‘미당 유사’의 창조』, 연세대 석사논문, 2005, 84~85면.

20) 진창영, 『우리 시의 신라정신과 노장의 생태주의』, 국학자료원, 2007.

21) 고운기, 『문화원형의 의의와 『삼국유사』』, 『한문학보』 24, 우리한문학회, 2011, 11~21면.

치중한 성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이들은 ‘지금 여기’의 시선을 통해 과거의 유산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굳이 세분한 까닭은 ‘지금’의 원형·원류로서 ‘과거’에 주목하느냐, ‘여기’와의 연고를 중심으로 그 ‘유산’의 所在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문화원형의 공급처로서 『삼국유사』의 역할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2.1. 과거와 현재의 대화

고운기는 앞서 살펴본 원전 번역과 재구성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연의 행적을 따라 ‘백제 - 경주 - 동해 바다 - 강원도’²²⁾의 순으로 이루어진 『삼국유사』 답사기²³⁾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스토리텔링 삼국유사’ 시리즈라는 기획물을 결심한다. 1권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현암사, 2009)에서 유통과 관련된 외부적 사실들을 설명한 성과를 토대로, 2권에서는 『삼국유사』의 형성 과정에 드러난 일연의 글쓰기 방식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삼국유사』 서술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지만, 편찬자의 생애와 정치적 감각을 이와 연결하여 이해한 성과는 흔치 않다. 전란을 겪은 일연이 전쟁에 임한 자의 허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태종 춘추공」 조를 구성했다거나, 일본 원정을 1년 앞둔 경주에 와서 살며 일본에 적재적인 김제상 형상을 만들어냈다는 서술²⁴⁾ 등은 흥미롭다. 게다가 학술논문, 서적, 포털 사이트 등을 두루 섭렵하는 포괄적인 소통 방식을 시도했다.

그런데 ‘일연의 글쓰기’에 대한 저자의 심도 있었던 관심은 2011년의 3권에서 선회한다. 당초에는 2권의 계획의 연장선상을 추구²⁵⁾했던 듯한데,

22) 본서의 개정판으로 보이는 저자의 스토리텔링 삼국유사 시리즈 셋째 권인 『삼국유사 길 위에서 만나다』, 현암사, 2011에서는 강원도 - 경주 - 경상도(동해 바다) - 전라도(백제)로 그 순서가 달라졌다. 그리고 경상도 항목에 김수로왕이 추가되고 각 장의 끝마다 ‘원문 읽기’ 항목이 4개씩 추가되었다.

23) 고운기, 『길 위의 삼국유사』, 미래M&B, 2006.

24) 고운기,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감각 - 삼국유사 서술방법의 연구 · 2」, 『한국언어문화』 4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29면.

기존 저서를 재구성하여 ‘삼국유사 길 위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했다. 뒤이어 ‘신화, 리더쉽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4권은 지금까지와는 맥락을 달리 하여 ‘신화의 리더쉽’을 거론하고 있다. 리더쉽의 명칭과 내용 자체도 대중적이거니와, 4권의 출판사 제공 책 소개에 따르면, 본서는 대선 정국에 발맞추어 기획된 것이다. 대중성을 지향하는 서적이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권에서 원전의 외면, 2권에서 내면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출발했던 기획이 3권에서는 기존 기획의 재구성이 되고, 4권에 이르러 시사적 관심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이도흠은 자신의 저술을 통해 이른바 ‘화쟁기호학’의 원리에 따라 운행하는 cosmos로서 신라의 심상을 재구성하였다.

나는 『삼국유사』에 나온 어휘들을 모아 일종의 삼국유사 어휘사전을 만들었다. [중략] 이를 종합하였다니 신라인이 은유와 상징을 만든 원리를 유추할 수 있었다. [중략] 이런 바탕에서 의미의 원리와 대응양식을 종합해보니 신라인의 세계관을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다. 고대 신라인은 ‘신라적 신선사상이자 샤머니즘’이라 할 풍류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교가 들어오자 이를 융합하여 ‘풍류만다라’라는 세계관을 지향하였다. 대략 1세기경부터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으나 풍류만다라의 세계관이 지배적 세계관이 되는 것은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대인 6세기 이후다. 그리고 선덕여왕 대에 전제왕권을 강화하고 통일을 이룬 원리로 화엄사상을 수용하고, 이어 성덕왕대에 와서 화엄만다라를 지배적 세계관으로 삼는다. 그리고 하대에 접어들면서 이 세계관은 분열과 집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²⁵⁾

이도흠은 신라인의 은유와 상징을 자신의 화쟁기호학적 원리에 따라 사전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성과에 따라 신라인의 세계관과 신라 문화사의 흐름을 오늘날에 복구, 재현하고자 한다. 본서는 특히 『삼국유사』에

25) 2권의 속표지에 있는 근간 안내에 따르면 당초 3권은 ‘삼국유사 글쓰기 기술’로 기획된 듯한데, 실제로는 기존 저서였던 『길 위의 삼국유사』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26)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2000, 18~19면.

서 신라인의 세계관을 머금은 신화집이라는 속성을 부각,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발상에 따라 3.3.3.에서 거론할 『이사부』라는 장편소설을 직접 창작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재구성된 ‘신라’를 오늘날의 인문학적 관점에 비추어 이상향 또는 이상적 시대로 판단하고 있다.

3.2.2 지역에 대한 관심의 바탕

이재호는 경주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답사 체험을 『삼국유사』와 연결시킨다. 다음 인용문에서 ①은 『삼국유사』를 인용한 부분인데, 더러는 원전에 없는 감상문 투의 묘사, 서술을 덧붙이기도 한다. 그리고 ②는 답사한 내용이며, ③은 교훈, 교설에 가까운 표현인데, 경우에 따라서 섞이기도 한다.

[③] 세상에 달이 없었다면 얼마나 삭막했을까. 푹푹하게 부풀어 오르는 사랑, 설레며 가슴 조이는 사랑, 슬프고 애절한 사랑, 눈물짓는 애타는 그리움, 아름다운 사랑의 시도 없었을 것이다. [중략]

[①]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풍속에 해마다 음력 2월 8일에서 보름까지 서라벌의 남녀들이 다투어 흥륜사의 전탑을 돌면서 복을 빌었다고 한다. [중략: ‘김현감호’ 줄거리] 세상 어느 누구라도 감미로운 사랑만을 계속할 수는 없다.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미련이 남은 김현은 처녀를 따라가려 한다. [중략]

[②] 지금 경주의 봄은 숨 막히게 아름답다. 온통 하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점점 삭막해져가는 우리네 가슴을 축축이 적시고 마음을 부풀게 한다. [중략] 옛 흥륜사였다는 경주공고에 갔다. 바람이 훈훈해 가슴에 안을 만했다. 중국의 심한 황사 때문에 달을 완전히 가려 호랑이 사랑을 재현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내일을 기약해야겠다. [하략]²⁷⁾

앞서 살펴본 3.2.1.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관점에 비추어 현재를 개선, 재평가하려는 시각이 다소 보이게 된다. 그러나 3.2.2.에서는 한 지역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으

27) 이재호, 『호랑이처녀의 숭고한 사랑 - 虎女の 목소리, 달빛 아래 부서지고..』, 위의 책, 157~161면.

며, 『삼국유사』의 내용을 한결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3. 개별적 요소의 특화

여기서는 향가, 처용, 이사부를 중심으로 『삼국유사』에서 개별적 요소를 뽑아 대중적 매체로 다시 창작한 성과를 살펴본다.²⁸⁾

3.3.1. 향가

향가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한때 소설 향가 연작을 발표하기도 했던 김장동²⁹⁾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김장동은 최근의 저서에서 소설, 오페라, 뮤지컬 등의 이른바 multi-platform의 형태로 향가를 다시 창작할 것을 촉구하였다.

- ① 소설 : 저 자줏빛 바위 가에 / 아, 잣가지도 높아라
- ② 오페라 혹은 뮤지컬 : 수호부인 / 가말이 네히러라 / 원왕생
- ③ 향가를 소설로 쓰기까지 : 「현화가 의 경우

③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저자는 「현화가」의 경우 두 번째 해룡 관련 기사의 비현실성, 두 늙은이와 해룡 사이의 관계 등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등에 고심하였다고 하며, 결국 몇 가지 학설을 참조한 끝에 ‘失明老人’으로 처리하여 수로의 옛사랑으로 처리하였다. 고대사회의 자유분방한 사랑 이야기로 처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로부인의 윤리성을 새삼 강조한다.³⁰⁾

28) 이들은 이른바 ‘문화콘텐츠’의 영역에 속하므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별고로 다루는 편이 합당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 자체가 분석 대상이라기 보다는 번역을 통한 현대화의 사례로서 거론하는 쪽에 그 의도가 있다. 따라서 일단 본고의 논지와 관련된 몇 가지 요소만을 지적하는 데 그쳤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후일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29) 김장동, 『향가를 소설로, 오페라로, 뮤지컬로』, 북치는마음, 2010.

30) <현화가>와 관련 전승은 애정 주제의 보편성 덕분에 여러 차례 공연된 바 있다. 근래의 공연으로 인각사 삼국유사문화제의 뮤지컬과 국립극단의 삼국유사

김장동이 추구했던 multi-platform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향가는 현대무용으로 각색된 적도 있다.

「헌화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로 아름다움을 위해 생명을 내거는 예술가의 사랑을, 「서동요」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는 젊은 남녀의 용기 있는 사랑을, 「찬기과랑가」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형이상학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작품은 한국 무용계의 일가견이 있는 세 명의 안무가에 의해 공간적으로 창조됩니다. [중략]

무대미술에서는 향가라는 시의 세계를 순금으로 상징화했으며 무대에서 빛이 사라지면 앙상한 뼈만 남은 나뭇잎은 삶과 죽음의 이미지로 하였습니다. 「서동요」에서는 벽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잎사귀와 내면이 비춰지는 거울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찬기과랑가」에서는 땅속에 뿌리를 박지 않은 나무가 극의 절정을 유도하며 공중으로 비상하게 하였습니다. 「헌화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노인이 있는 돌무덤이 있고 높은 절벽의 철쭉꽃들은 머리 위 낙엽에 영상으로 투사되었다가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내려는 散花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³¹⁾

현존 향가 가운데 ‘사랑’을 주제로 삼은 것은 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용극은 3편의 향가를 각각 예술가, 남녀, 형이상학적인 사랑으로 재해석하여 무대에 올려놓았다.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 그러한 사랑의 주제를 배우들의 연기와 각종 소품을 통해 관객에게 뚜렷한 인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향가의 추상적 詩想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안으로 반드시 언어를 매개로 한 주제의 전달 또는 신라 당대의 재구성을 시도하기보다는, 無言의 무용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프로젝트 <꽃이다> 등이 있다. 안산예총 사이트에 따르면 이 가운데 <꽃이다>는 삼국통일이라는 정치사적 배경을 함께 다루었다. 그런데 2012년 삼국유사문화제의 뮤지컬 <도화녀와 비행랑>도 관련 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삼국통일의 꿈’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여느 사극과 마찬가지로 삼국통일이라는 정치사적 과제가 각종 뮤지컬의 주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31) 서울예술단, 『서울 예술단 공연자료집 2 - 향가, 사랑의 노래』, 서울예술단, 2002, 8면.

3.3.2 처용

허혜정³²⁾은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울산 지역을 위한 관광 자원의 개발을 위해 무형문화재 처용에 주목하였으며, 입체영상의 저장 및 보존, 현대의 시·소설과 처용무, 무용극,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콘텐츠화의 가능성[one source-multi use]을 강조하였다. 본서의 목차를 통해 본 저자의 계획은 아래와 같다.

4. 처용'의 문화와 실�크로드 - 아랍인으로서 처용.
5. '처용'의 정체와 캐릭터 콘텐츠 - 울산 토박이로서 처용.
6. 「처용가」와 달의 에로티즘 - 아랍의 후별(달) 신앙과 바람난 아내, 집신 모티프.
7. '처용'의 문화와 수피즘(Sufism) - 포르노그래피와 여성성.
8. 「처용가」와 문학콘텐츠 - 간통과 번뇌, 나약한 남성상.
9. '처용무'와 현대의 공연물 콘텐츠 - 울산 처용제(향토문화제), 가요, (게임).
10. 현대의 오르지(Orgie) 문화와 '처용' 관련 영화·음악 콘텐츠 - 성적 아노미, 대중가요, 영화.
11. 디지털 처용 : 멀티포엠·애니메이션 개발 현황

위의 내용은 ①처용의 '이국성'을 '국제성'으로 판정하고³³⁾, ②처용이 처한 문제 상황이 지닌 성적 상징성을 강조함에 따라 처용 처의 비중이 높아지며, ③그에 따라 처용은 이러저러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인물이 처용이라는 인식상의 도치가 벌어진다. 결국 처용과 그 처를 우리 캐릭터로서 다시금 주목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 유형의 캐릭터에 처용 또는 처용 처로 치환시킨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수수께끼인 처용의 정체를, 현대적·국제적으로 새로이 규정하고자 한 점은 의의가 있다.

32) 허혜정, 『「처용가」와 현대의 문화산업』, 글누림, 2008.

33) 처용의 국제성은 다음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 그 성격과 지향점은 본 서와 거리가 있다. 김명준, 「서역(아랍)과 고려속요」, 『중세 동서시가의 만남』, 단국대 출판부, 2009, 161~182면.

3.3.3. 이사부

이도흙은 자신의 이상을 온전히 실현한 인물로서 ‘이사부’를 장편소설을 통해 형상화한다. 다음 서문에서도 보이듯 이 작품은 3.2.1.에서의 저술의 연장선상에 있다.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를 출간한 후 조금만 살을 붙이면 소설이 될 듯하다며 『삼국유사』를 소재로 소설을 써보라고 권하는 이들이 여럿이었다. 어떤 신문은 몇 년째 연말마다 연재를 제안한다. [중략] 향가와 『삼국유사』와 풍류도를 연구하는 인문학자인 내게 신라 중대 사회, 특히 불교와 풍류도가 맞서다 하나가 되는 과정은 오랫동안 관심사이자 수수께끼였다. 화쟁기호학을 이용하여 역사적 사실이 거울처럼 반영된 텍스트인 반영상과, 프리즘처럼 상상과 무의식으로 굴절된 텍스트인 굴절상을 종합하면서 세계관과 사회문화와 역사와 주체를 아우르며 살폈다. 그러자 그 시대의 비밀들이 오십칠 년간이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사부를 계기로 술술 풀렸다. 그때의 황홀감은 무당에게 신이 내리고 춤꾼이 흥의 정점에 이르는 그 순간과 같으리라.³⁴⁾

이사부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은 까닭은 “불교와 풍류도가 맞서다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에 최적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부는 여느 현대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뇌에 빠지거나 갈등을 겪기보다는, 고뇌와 갈등의 대상을 포섭하여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취한다. 그렇게 되는 근거는 화쟁기호학에 있다. 이사부가 아버지 지대로왕의 명으로 고령가야 군사를 월성에서 물리치는 장면을 보자.

“일식을 두고 흥조라 하는데, 장막과 같은 것으로 가려졌을 뿐이다. 혜성도 마찬가지로. 혜성을 빗자루처럼 생겼다 해서 길쓸별[道尸掃尸星]이나 掃星으로도 부르니, 이 별은 우리가 가는 앞길을 쓸어주는 길한 별이다. 저 혜성이 우리 군영에서 빛나며 우리가 진군할 길을 밝히고 있으니, 이는 필히 우리의 승진을 예고하는 하늘의 계시니라. 자, 하늘의 계시를 받아 적들을 물리치자. 길쓸별 만세! 신라 만세! 지대로 대왕 만세!”(67면).

34) 이도흙, 『이사부』, 자음과모음, 2010, 7면.

흥조인 혜성을 길조로 해석하는 모습은 「혜성가」 전승담과 일치한다. 그리고 「혜성가」 전승담에서 폭력과 전쟁이 생략되었듯,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기기” 위하여 탈해잇금 시절 居道의 전략을 응용하여 128명의 馬戲로써 위협하여 항복을 받아낸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본서를 관통하는 이사부의 신념이며, 저자가 생각한 신라 문화의 이상에도 부합하는 듯하다. 이 때문에 본 작품의 군담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비쳐지지 않는 대신, 이사부가 제자 지물혜와의 대화에서 『莊子』의 ‘得魚而忘筌’, 『금강경』, 「능정업장분」 등을 통해 언어와 업의 의미를 서술하는 장면은 매우 실감나는 토론처럼 구성되었다. 주인공 이사부에게 저자가 기대하는 것은 전쟁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신라 사상이 체현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본서의 후반부는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투가 비중 있게 서술되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不殺의 원칙이다. 이사부는 백제와의 전투에서는 방어전이므로 불살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역시 백제와 고구려의 싸움에서도 사상자는 거의 없었음을 강조한다. 여·제와의 전면전이라는 大局보다는 이사부의 원칙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사부는 전쟁 영웅이 아닌 성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사부의 모습은 향가의 제재로서 화랑의 형상³⁵⁾과도 자못 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뒷표지의 해설에 따르자면, 이사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다.

화쟁기호학을 통한 신라 중대의 사회문화, 정치, 이데올로기, 세계관의 총체적 재구성! [중략] 광개토대왕보다 더 너른 땅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아우른 대장군, 장보고에 앞서서 동해를 다스린 해상왕, 백성과 부하들을 신바람 나서 일하고 싸우고 어울리게 하는 이상적인 한국형 지도자, 신라 최고의 꽃미남이면서도 오로지 지소태후하고만 천년에 남을 사랑을 한 貞節男! 무엇보다도 그는 내 몸 안의 신과 밖의 신이 하나로 어우러져 지극한 興에 이르는 풍류랑이

35) 서철원, 「향가의 제재로서 화랑 형상의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93~119면.

었다.³⁶⁾

저자가 구상한 이사부는 광개토대왕의 대륙성, 장보고의 해양성, 신바람 나게 하는 한국형 지도자, 내·외면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꽃미남[花郎?]이다. 이것이 저자가 연구해 온 신라의 興, 풍류이며, 화쟁기호학적 인간의 실체이다.

이사부라는 인물 형상이 얼마나 소설적으로 뛰어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지는 않겠다. 『삼국유사』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대중성과 더불어 호응하게 된 성과물로서 이사부의 의의는 크다고 본다. 또한 본 작품은 「소설화의 역사적 근거」를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사부와 옥진의 사랑 내용을 구성하면서 『화랑세기』를 적극 활용했다.³⁷⁾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역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위한 대중화의 과제로서 유념할 요소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유사』 원전에 대한 부담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해당 시기와 지역 그리고 역사적 인물 등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형상화는 보다 다채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운기가 지적했던 김춘추, 김제상 이야기에서 드러난 일연의 글쓰기 감각 역시 그와 같은 성과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삼국유사』 전체를 대상으로 구축된 종합적 문화원형의 성과를 통해 당대의 신라 혹은 경주라는 시·공간을 온전히 복원 또는 재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한다. 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상상력은 필요하다. 상상력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학술적 탐색과 함께, 경주 지역의 문화재와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가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삼국유사』 가운데 개별 요소를 특화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영역이 지나치게 과장 또는 축소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36) 이도흠(2010), 뒷표지.

37) 이도흠(2010), 406면.

령 향가를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저에 의한 牽引이 더러 보이기도 한다. 학술과 대중의 만남이 이런 식의 억지 접붙이기가 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의 대중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삼국유사』의 현대역은 크게 원전을 그대로 따르는 흐름과, 보다 많은 독자층에 호소하기 위하여 원전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전자의 경우 학계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 관련 주석을 종합하거나, 일부 전공에 특화된 정보를 중심으로 시각 자료까지 포함하여 첨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각각 ‘종합적 주석의 지향’, ‘주석의 특화 및 관련 자료 첨부’, ‘원전의 재구성’이라 하여 원전 번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종합적 주석의 지향’은 결국 『삼국유사』 이외의 정보와 『삼국유사』 수록 정보 사이의 網 구축을 통해 삼국과 신라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또한 ‘주석의 특화 및 관련 자료 첨부’는 특정 전공 분과의 목적과 필요를 감안하여 특수한 성격의 주석이나 관련 시청각 자료를 덧붙여왔던 양상이다. ‘원전의 재구성’은 일부 유명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삼국유사』의 모든 텍스트를 서열화하여 선택 또는 배제시키면서도 ‘새로운 『삼국유사』’를 만들고 있다는 태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원전의 재구성’은 이른바 ‘미당 유사’라 불리기도 했던 서정주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여러 편의 시와 시집을 통해 『삼국유사』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시켜, 나름의 ‘신라’ 형상을 만들어내고자 추구했던 방법론을 닮아 있다. 다음으로 ‘주석의 특화 및 관련 자료 첨부’와 관련하여 ‘신라’라는 특정 시대, ‘경주’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한정된 수요 또는 지역인의 애호와 밀착된 특수성으로써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형국에 주목했다. 끝으로 ③에서는 일부 유명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삼국유사』의 모든 텍스트를 서열화하여 선택 또는 배제시키면서도 ‘새로운 『삼국유사』’를 만들고 있다는 태도를, 몇몇 캐릭터 또는 개별적 요소를 선택하여 콘텐츠화함으로써 삼국·신라 시대 전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발상과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향가, 처용, 이사부 등 개별적인 요소를 특화시키고 시각 예술로 변용해가는 고정에서도 전통시대의 이상향으로서 신라의 재현이라는 과제를 향한 압박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렇듯 현대역은 대중화의 토대로서 원전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대중화의 성패 여부에 따라 자신의 존립 근거를 평가받기도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패강, 『역주 삼국유사』 I~V, 이회문화사, 2002~2003.
- 고운기 글·양진 사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002.
- 고운기 옮김,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2001.
- 고운기, 「문화원형의 의의와 『삼국유사』」, 『한문학보』 24, 우리한문학회, 2011, 7면.
- 고운기,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감각 - 삼국유사 서술방법의 연구 · 2」, 『한국언어문화』 4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29면.
- 권상로, 『삼국유사』, 동서문화사, 1978.
- 김명준, 「서역(아랍)과 고려속요」, 『중세 동서시가의 만남』, 단국대 출판부, 2009, 161~182면.
- 김열규·김정하·곽진석, 『신삼국유사』, 사계절, 2000, 6~7면.
- 김영태,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 1, 도피안사, 2009.
-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 김장동, 『향가를 소설로, 오페라로, 뮤지컬로』, 북치는마을, 2010. 208면.
- 리상호 옮김, 강운구 사진,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까치, 1999.
- 박성봉·고경식 역, 『역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2.
- 서울예술단, 『서울 예술단 공연자료집 2 - 향가, 사랑의 노래』, 서울예술단, 2002, 8면.

- 서철원, 『향가의 제재로서 화랑 형상의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29, 한국
시가학회, 2010, 93~119면.
-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2000, 18~19면.
- 이도흠, 『이사부』, 자음과모음, 2010, 251~4면.
-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상·하, 민족사, 2005.
- 이병도 역, 『CD-Rom 삼국사기·삼국유사』, 두계학술재단, 1999.
- 조은정, 『『삼국유사』의 시적 수용과 ‘미당 유사’의 창조』, 연세대 석사논문, 2005,
84~85면.
- 진창영, 『우리 시의 신라정신과 노장의 생태주의』, 국학자료원, 2007.
- 허혜정, 『『처용가』와 현대의 문화산업』, 글누림, 2008.

☐ 서철원

- ☎ 소 속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 주 소 :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성균관대학교 교수회관 40221호>
- ☎ 전화번호 : 02-760-0240(연구실)
- ☎ 누리편지 : koee@nate.com

- ◎ 논문접수 : 2012년 10월 23일
- ◎ 논문심사 : 2012년 11월 22일~12월 28일
- ◎ 게재결정 : 2012년 12월 28일

<Abstract>

A Study of Translation of Samgukyusa in Modern Language and its Popularization

Seo, Cheol-won

(Sungkyunkwan University)

In terms of translation of Samgukyusa,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reorganize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text. In case of the former, the notes on specific matters which are necessary in all academic fields are added, or the information specialized in particular major covers up to visual data. Then,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rientation of general notes,' 'specialization of notes & attachment of related data' and 'reorganization of original text.' In terms of the achievement of the search for popularization of 'Samgukyusa,' the attitude which was shown in three types of translation tendency continued. 'Reorganization of original text' was found in Seo Jeong-ju. In addition, there has been pressure to restore Silla Dynasty as an idealistic direction to the traditional era in the process of specializing individual factors such as Hyangga, Cheoyong and Isabu and transforming into visual art.

Keywords : *Samgukyusa, Translation, Popularization, Original Text, Cultural Prototype, Seo Jeong-ju, Gyeongju, Cheoyong, Isabu*